

방송말, 매체언어의 나아갈 길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2)**

표준어 바깥의 세상 **땡돈과 찰락돈**

실전 띄어쓰기(1) **코로나19 유행 시에는-‘시’ 띄어쓰기**

우리말 다듬기(1) **소비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상생 소비**

말뭉치로 바라보기 **노인이 요양원을 꺼리는 이유**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3)**

실전 띄어쓰기(2) **오랜만의 외출-‘만’ 띄어쓰기**

국어원 소식 (2) **<<심표, 마침표.>>가 상을 받았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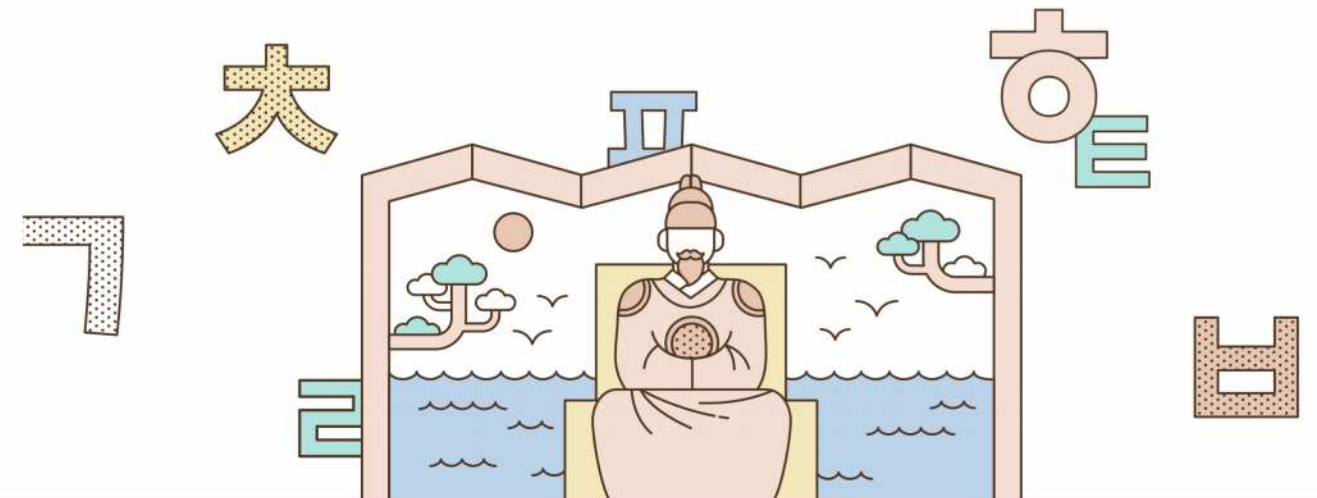
우리말 다듬기(2) **한곳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복합 문화 공간**

우리말, 그리고 사람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를 조명하다**

국어정책 통계 **소중한 언어 자원 말뭉치로 만드는 우리말의 미래**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2020. 12.



목차

심표, 마침표. | 2020. 12.

국어 배우기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2)
6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3)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땡돈과 찰락돈
14	실전 띄어쓰기	코로나19 유행 시에는-‘시’ 띄어쓰기
16		오랜만의 외출-‘만’ 띄어쓰기

국어 알리기

18	국어원 소식	방송말, 매체언어의 나아갈 길
20		《심표, 마침표》가 상을 받았대요!
22	국어정책 통계	소중한 언어 자원 말뭉치로 만드는 우리말의 미래
24	우리말 다듬기	소비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상생 소비
26		한곳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복합 문화 공간

국어로 바라보기

28	말뭉치로 바라보기	노인이 요양원을 꺼리는 이유
32	우리말 그리고 사람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를 조명하다

국어로 함께하기

40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44		독자 참여 행사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2)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에서는 문장의 구조 및 형식과 관련한 여러 문법 용어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난 호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 성립한 문장, 즉 하나의 절로 된 문장을 홑문장이라고 하였는데, 홑문장(절)을 일정한 형식적 유형으로 나눈 것을 ‘문형(文型)’이라고 한다. 문형은 형식적으로 아주 사소한 차이까지도 고려하여 수십, 수백 가지로 잘게 분류할 수도 있고, 큼직큼직하게 몇 개 정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형을 분류하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분류한 문형을 종종 ‘기본 문형’이라고 하는데, 문형과 기본 문형이 학문적으로 엄격하게 구별되는 말은 아니어서 그 둘을 굳이 구별하지 않는 학자도 많다. 영어 문법에서 문장을 5 형식으로 나누는 것처럼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와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말 문장도 대략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서술어만 있는 문장, 예컨대 “도둑이야!”와 같은 문장은 형식이 단순해 문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1) 주어+서술어 [예]아기가 잔다.
- (2) 주어+목적어+서술어 [예]그분이 물을 마셨다.
- (3) 주어+보어+서술어 [예]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 (4) 주어+필수 부사어+서술어 [예]이 옷이 나에게 어울릴까?
- (5) 주어+목적어+필수 부사어+서술어
[예]우리는 그분을 천재로 여긴다.

(1)~(5)와 같은 다양한 문형의 홑문장과 달리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겹문장(복문)이라고 한다. 겹문장은 절과 절을 이어서 만들기도 하고, 어떤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을 절로 안겨서 만들기도 한다. 이제 겹문장의 종류를 알아보기로 한다.

- (7)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 (8) 비가 오면 소풍이 취소되겠다.

(7)은 ‘바람이 불(다)’와 ‘비가 오(다)’가 연결되고, (8)은 ‘비가 오(다)’와 ‘소풍이 취소되(다)’가 연결된 문장이다. 이처럼 둘 이상의 절이 연결된 문장을 ‘이어진문장(접속문)’이라고 한다. (7)과 같이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대등 접속문)’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8)에서는 뒤 절의 의미가 주가 되고 앞 절의 의미는 그에 덧붙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덧붙이는 특정한 의미에는 (8)에서와 같은 ‘조건/가정’ 이외에도 ‘목적/의도, 원인/이유, 앞선 시간, 배경 상황, 양보’ 등이 있다. 이처럼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되어 연결된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종속 접속문)’이라고 한다.

- (9) 나는 그때 [봄이 왔음]을 느꼈다.
- (10) 나는 [언니가 그린] 그림을 좋아했다.
- (11) 형은 나를 [허가 닳도록] 타일렀다.

(9)~(11)에서 [] 부분은 그 속에 주어와 서술어가 갖추어져 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셋 다 전체 문장 속에서 특정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다. (9)에서는 목적어로 들어가 있고, (10)에서는 관형어로 들어가 있으며, (11)에서는 부사어로 들어가 있다. 이처럼 전체 문장 속에서 특정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절을 안긴절(내포절)이라고 한다. 안긴절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은 안은문장(포유문)이라고 한다.

(9)의 ‘봄이 왔음’은 명사 기능을 하는 말이다. ‘봄이 왔음’ 대신에 명사 ‘자부심’을 쓸 수도 있고,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10)의 ‘언니가 그린’은 뒤의 체언 ‘그림’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 기능을 하는 말이고, (11)의 ‘허가 닳도록’은 ‘타일렀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 기능을 하는 말이다. 그래서 (9)~(11)의 안긴절을 각각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9)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 (10)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11)은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 된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 **문형:** 홑문장(절)을 일정한 형식적 유형으로 나눈 것
- **기본 문형:** 가장 단순하게 분류한 문형
- **겹문장(복문):** 둘 이상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 **이어진문장(접속문):** 둘 이상의 절이 연결된 문장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대등 접속문):**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종속 접속문):**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되어 연결된 문장
- **안긴절(내포절):** 전체 문장 속에서 특정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절
- **안은문장(포유문):** 안긴절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

문장의 구조 및 형식 관련 용어들(3)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과 ‘인용절을 안은 문장’을 마저 소개하고자 한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을 소개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용어인 ‘주제’와 ‘언급’을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 (1) 민주는 눈이 크다.
(2) 그분은 아들이 미술 학원에 다녀.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의 주어를 ‘민주’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서술어 ‘크다’의 주어는 ‘눈’이지 ‘민주’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장에 대해 학교 문법에서는 우선 ‘눈’이 주어이고 ‘크다’가 서술어인 ‘눈이 크다’라는 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시 전체 문장의 주어 ‘민주’의 서술어가 된다고 설명한다. ‘눈이 크다’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안겨 있으므로 서술절이라고 한다. (2)도 ‘아들이 미술 학원에 다녀’를 서술절로 안은 문장이다.

그러나 문법학계에서는 서술절을 안은 문장의 설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3)과 같은 문장은 그러한 학교 문법의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3) 커피는 잠이 안 와.

많은 사람들은 (3)이 ‘틀린’ 문장이 아닌지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재의 첫머리에서 설명했듯이 문법에는 규범 문법과 기술 문법이 있다. 토박이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쓰는 문장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이 기술 문법이라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3)은 기술 문법의 설명 대상이다. 규범 문법의 관점에서 (3)을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르면 (3)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처럼 수정해야 한다. 우리말을 자세히 관찰하면 (3)과 같은 문장이 상상 외로 자주 쓰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문장들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어 규범을 넘어서 언어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3)에서 ‘커피’를 ‘잠이 안 와’의 주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잠이 안 와’의 주어로 ‘나는’이 생략되어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결국 (3)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 문법학자들은 ‘주제’(혹은 ‘화제’)와 ‘언급’(혹은 ‘평언’) 개념을 도입한다. 화자가 문장에서 어떤 대상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할 때에 그 대상을 ‘주제’라고 하고, 그 내용을 ‘언급’이라고 한다. 주제는 보통 ‘~와/과 관련해 말하자면’으로 해석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은 커피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문장이고,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잠이 안 온다는 사실인 것이다. 따라서 (3)의 주제는 ‘커피’이고 언급은 ‘잠이 안 와’이다. 주제와 언급 개념은 (1), (2)와 같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도 설명할 수 있다. (1)에서 주제는 ‘민주’이고 언급은 ‘눈이 크다’이다. (2)에서 주제는 ‘그분’이고 언급은 ‘아들이 미술 학원에 다녀’이다.

- (4) 진호가 독서를 한다.
- (5) 독서는 진호가 한다.

주제와 언급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내용을 기준으로 한 문법 개념이므로, 문장 성분의 구성과 상관없이 모든 문장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제와 언급의 정의에 따라 (4)와 (5)를 분석할 수 있다. (4)와 (5)의 주제는 각각 ‘진호’와 ‘독서’이고, 언급은 각각 ‘독서를 한다’와 ‘진호가 한다’이다.

- (6) 형이 “이것을 할머니께 드려.”라고 말했다.
- (7) 형이 그것을 할머니께 드리라고 말했다.

(6)과 (7)은 형이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장이다. 말/글/생각을 따온 절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6)에는 형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온 인용절이 들어 있고 (7)에는 그 말이 현재 화자의 관점에서 변형이 되어 있는 인용절이 들어 있다. 앞엿것을 직접 인용절이라 하고 뒤엿것을 간접 인용절이라고 한다. 학교 문법에서 (6)과 (7)은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 **서술절:** 절로 나타난 서술어
- **주제:** 화자가 문장에서 어떤 대상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을 가리키는 말
- **언급:** 화자가 문장에서 어떤 대상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가리키는 말
- **인용절:** 말, 글, 생각을 따온 절
- **직접 인용절:** 말, 글, 생각 그대로를 따온 인용절
- **간접 인용절:** 말, 글, 생각의 내용을 현재 화자의 관점에서 변형한 인용절

땡돈과 짬락돈



글. 이길재(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 목재업은 인부두 많이 고용해야 되구 길두 닦구, 목재를 운반할 마소두 갖화야겠으니,¹⁾ **{땡돈}** 한 푼 없는 나 같은 알건다리²⁾에게는 생각만 컸지 어디 별수 있드라구. 《박계주(2006): 무명지사의 최후》 (중국)
- 생각해 보구려. **{땡돈}** 한 푼 안 들이구 뭘 크게 바라고 있어? 《김자림(1994): 유산》 (남)
- 솔직히 집회 열심히 나가면 우리 회원들한테 복지혜택이라도 내려올 줄 알았다. 그런데 일전 **{땡푼}** 없더라. (한겨레신문 2019. 3. 23.) (남)

1) '갓추다'의 중국 조선족 사회의 사투리인 '갓후다'의 활용형이다.

2)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쓰이는 '알건달'의 사투리이다.

김자림(1926~1994)은 1948년에 평양사범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평양서문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월남한 극작가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속에는 북에서 쓰던 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위에서 보인 '땡돈'이 그러하다. 이 말은 주로 북한과 중국 지역에서 그 쓰임이 발견된다. '땡푼'은 우리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남한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고향인 전북 완주에서도 익숙하게 써 온 말이다. 짐작하겠지만 '땡돈, 땡푼'은 '아주 적은 돈', 즉 '땡전'과 같은 말이다. 모두 '땡'이 쓰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의사는 려홍이의 호주머니에 **{땡돈}** 한잎 없는게 뻘뻘던지 전혀 달가와하지 않는 표정이였다. 《김송죽(1983): 번개치는 아침》 (중국)
- 이백원? 지금 **{땡돈}** 한잎 없네. 《리원길(1995): 솟불은 타고른다》 (중국)
- 돈! 아, 아까 내말 못 들었음마? 금년엔 글썽진 빚이 무거워 니러날 수가 없는데 백 원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와? 이젠 뭘 **{땡돈}** 한푼 어쩔 수 없음메. 《계용묵(1941): 수달》 (남)

'백치 아다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계용묵(1904~1961)은 평안북도 선천 출신의 작가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위에 보인 '땡돈'은 주로 중국과 북한 지역의 사투리임을 알 수 있다. '땡돈 한 잎'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땡돈'을 세는 단위는 '잎'(표준어는 '뉘')이다. 그런데 '뉘'는 주로 동전을 셀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땡돈'은 지폐가 아니라 동전, 즉 쇠돈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땡'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

- * **땡 [부사]** 작은 쇠붙이나 단단한 물건이 세게 부딪쳐 울리는 소리.
// 대장장이가 내리치는 망치가 쇠붙이에 닿는 순간 땡 소리가 울렸다. 《표준국어대사전》
- * **땡 [부사]** 작은 종이나 그릇 따위의 쇠붙이를 두드리는 소리. '땡'보다 센 느낌을 준다.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의 뜻을 살펴보면, '땡돈'의 '땡'은 쇠돈(동전)이 무언가에 부딪칠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땡'이 변했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나타내는 '땡'을 활용해서 '땡돈, 땡푼, 땡전' 같은 말이 쓰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입원비 한 푼을 못주고 왔닥 해도…… 철케 보소, {깡푼} 한 앞이 있는가.
《오유권(1964): 대지의 학대》 (남)

참고로 ‘땡푼’과 같은 뜻의 ‘깡푼’이 쓰인 사례도 발견되는데, 이는 단순히 자음이 교체된 것으로 해석된다.

★ **짚랑돈 [명사] (말체)** 쇠돈. 짚락짚락 소리를 내는 돈잎이라는 뜻에서 이르는 말이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 **짚랑돈 [명사] (말체)** 쇠로 만든 적은 액수의 돈을 이르는 말. 부딪칠 때 짚랑짚랑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최근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말대사전(증보판)》에는 ‘짚락돈’과 ‘짚랑돈’이 새로 실렸다. 여기에도 흥내말 ‘짚락’과 ‘짚랑’이 사용된 것이 눈에 띈다. 두 말 모두 작은 쇠붙이가 흔들리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를 가리키는 말인 것을 보면, ‘아주 작은 돈’이나 ‘동전’을 가리키는 말에는 ‘땅돈, 땡전’부터 ‘짚락돈, 짚랑돈’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조어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짚락’은 ‘짚랑’과 뜻이 비슷한 북한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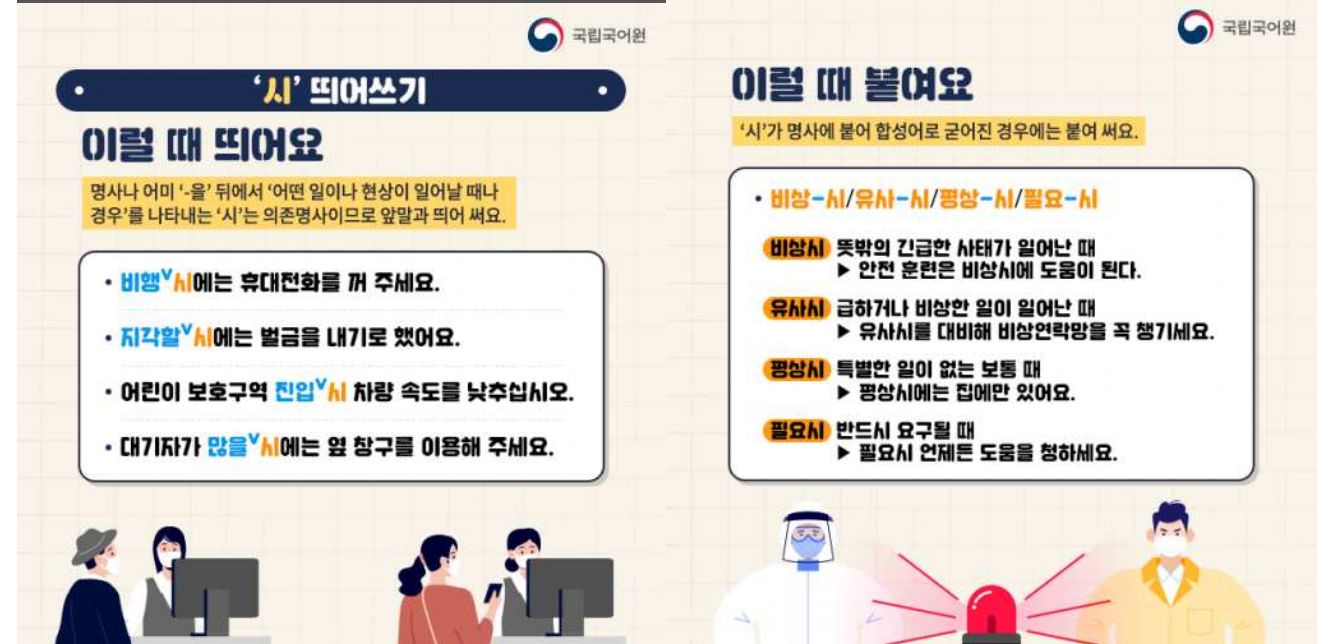
- 그래 되돌아오는 로자나 겨우 장만해가지고 {짚락돈} 몇잎을 주머니에 넣고 이듬해 초봄에 고향에 돌아왔다.
《김삼복(1973): 우리 마을》 (북)

- 주머니 안에는 뽀스를 타려고 넣어두었던 {짚랑돈} 몇잎밖에는 없었다. 《내려설수 없다》 (북)

오늘 소개한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흥내말을 사용하여 그 말맛을 한껏 살린 낱말들이다. 새말이 만들어질 때 이처럼 우리 고유의 말맛을 잘 살린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 그러고 보니 ‘문콕’, ‘심쿵’ 같은 새말이 있었군.

코로나 19 유행 시에는 '시' 띄어쓰기

실 전 띄 어 쓰 기



오랜만의 외출 '만' 띄어쓰기

실 전 띄 어 쓰 기



실 전 띄 어 쓰 기

‘만’ 띄어쓰기

이럴 때 띄어요.

‘만’이 시간, 횟수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써요.

- 시간을 나타낼 때
 - 외식하는 게 얼마**만**이야? - 우리는 십 년**만**에 다시 만났다.
- 횟수를 나타낼 때
 - 한 번**만**에 합격하다니, 정말 대단해.
 - 그는 만만지 두 번**만**에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다.

‘만’이 보조형용사 ‘만하다’로 쓰일 때도 띄어 써요.

- 앞에서 말한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낼 때
 - 듣고 보니 그가 화를 낼**만**하다. - 그곳은 정말 가볼**만**해.
- 앞에서 말한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낼 때
 - 왜 만 줄 알았는데 충분히 걸을**만**했다.
 - 그는 차를 살**만**한 형편이 못 돼.

실 전 띄 어 쓰 기

이럴 때 붙여요.

‘만’이 한정, 강조, 비교를 나타내는 조사로 쓰일 때는 붙여 써요.

- 한정
 - 아내는 웃기**만**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 빵**만**먹으니 소화가 안 되지.
- 강조
 - 그를 만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내일은 10시까지 학교에 가야**만**해.
- 비교
 - 파도가 집채**만**하다.
 - 너**만**한 친구가 어디에 있겠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말 중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로 한 단어로 굳어져 붙여 써요.

-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보니 좋구나.



실 전 띄 어 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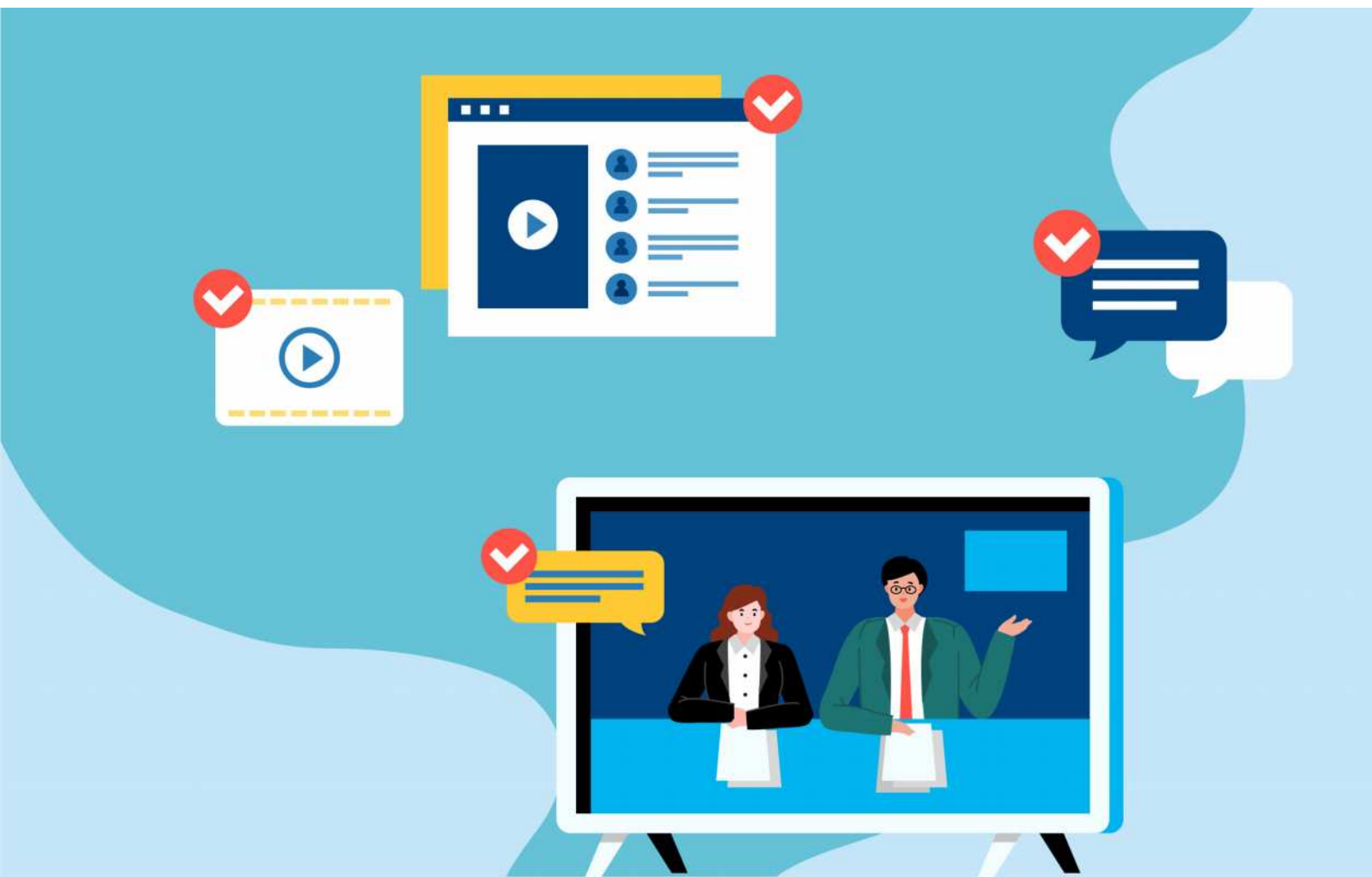
오랜만의 외출

• ‘만’ 띄어쓰기 •

코로나 19로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요즘, 마음마저 움츠리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집 근처라도 나가 보세요.

방송말, 매체언어의 나아갈 길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방송문화진흥회,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화방송 골든마우스홀(상암 본사 1층)에서 정부·언론·시민단체 공동 비대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매체언어의 사회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매체 의존도가 더욱 높아진 환경을 고려하여,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매체언어의 역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학술대회의 1부는 방송말연구회 객선헌 전문위원의 <방송사의 방송말과 표현의 기준 고찰에 대해>로 시작하며,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의 <한글문화연대의 공공언어 다듬기 및 매체 전파 전략>, 광운대 국어국문과 김소영 교수의 <문화방송의 보도언어 지침과 개선 방안>,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정희창 교수의 <보도언어의 국어학적 제문제> 등의 발제로 구성되었다.

2부에서는 ‘매체언어의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두고, 국립국어원 이대성 학예연구관을 비롯한 정부, 언론,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6명의 토론자가 60여 분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방송이 시작된 이래 매체언어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히며, “이 토론의 장이 앞으로 방송말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매체언어가 발전하는 데에 마중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으며, [아이엠비시 누리집](#)과 문화방송 누리소통망(유튜브)인 [‘아나운서 공화국’](#)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심표, 마침표.》가 상을 받았대요!



《심표, 마침표.》가 전자사보 웹진 부문 기획대상을 받았대요!

2020년 한해동안 우리 말글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국립국어원은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심표, 마침표.》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표, 마침표.》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기획대상 선정

《심표, 마침표.》가
전자사보 웹진 부문 기획대상을 받았대요!

2020년 한해 동안
우리 말글을 아껴 주신 모든 분들께
국립국어원은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소중한 언어 자원 말뭉치로 만드는 우리말의 미래



휴대전화의 음성비서부터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기기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말뭉치' 덕분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말뭉치를 수집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2020년 8월에는 18억 어절에 달하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뒷받침하는 말뭉치 사업,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중한 언어 자원 말뭉치로 만드는 우리말의 미래

국립국어원

'말뭉치'란 무엇일까요?

평소 우리가 쓰는 말이나 글에서 표본이 될 언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모아놓은 언어 자료입니다.

국립국어원

말뭉치, 어디에 활용할까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특히 인공지능 기술 개발 지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

말뭉치는 어떻게 만들까요?

언어 자료 수집 및 저작권 확보 > 언어 자료와 메타 정보 입력 > 분석 정보 입력 (품사 구분, 의미, 개체명 정보 등)

국립국어원

최근 발표한 말뭉치의 특징은?

(2020년 보도자료)

10년 전보다 8배 많은 분량이 모인 우리말 자료

인공지능 스피커, 챗봇 등 대화형 서비스가 늘어나며 구어체 자료의 비중이 높아짐

2억 어절 → 18억 어절

21세기 세종 계획 (1998~2007년) → 모두의 말뭉치 (2018~2020년)

메신저 대화, 일상 대화, 텍스트

국립국어원

일상 언어에서 찾은 말뭉치 얼마나 모였을까요?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

종합 종합지, 지방지, 전문지, 인터넷 매체 등 3,530,000여 건 (18억 어절) (신문 말뭉치)

드라마 대본 등 방송 자료 및 일상 대화 27,920건 (1.3억 어절) (구어 말뭉치)

책, 잡지, 보고서, 저작물 등 20,180건 (1.6억 어절) (문어 말뭉치)

메신저 대화 자료 4,203건 (496만 어절) (메신저 말뭉치)

이 외에도 문서 요약 말뭉치, 어절을 분석해 만든 형태 분석 말뭉치, 다의어를 구별해 만든 어휘 의미 분석 말뭉치, 유사 문장을 모은 말뭉치 등 총 13가지 주제로 구성

국립국어원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국립국어원 '모두의 말뭉치' 누리집 (https://corpus.korean.go.kr)에서 이용 약정을 하시면 우리말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국립국어원

소비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상생 소비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에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이끄는 **상생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상생 소비는 '바이 소셜'을 다듬은 말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권 및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을 뜻해요.



폐방수천으로 만든 **새활용** 가방을 사거나 **공정 무역** 커피를 마시는 것도 **상생 소비**예요.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대중투자**를 하거나 **사회 가치 투자**를 하며 **상생 소비**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소비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상생 소비**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다들은 말

바이 소셜	→	상생 소비
업사이클	→	새활용
페어 트레이드	→	공정 무역
크라우드펀딩	→	대중투자
임팩트 투자	→	사회 가치 투자

한곳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복합 문화 공간



노인이 요양원을 꺼리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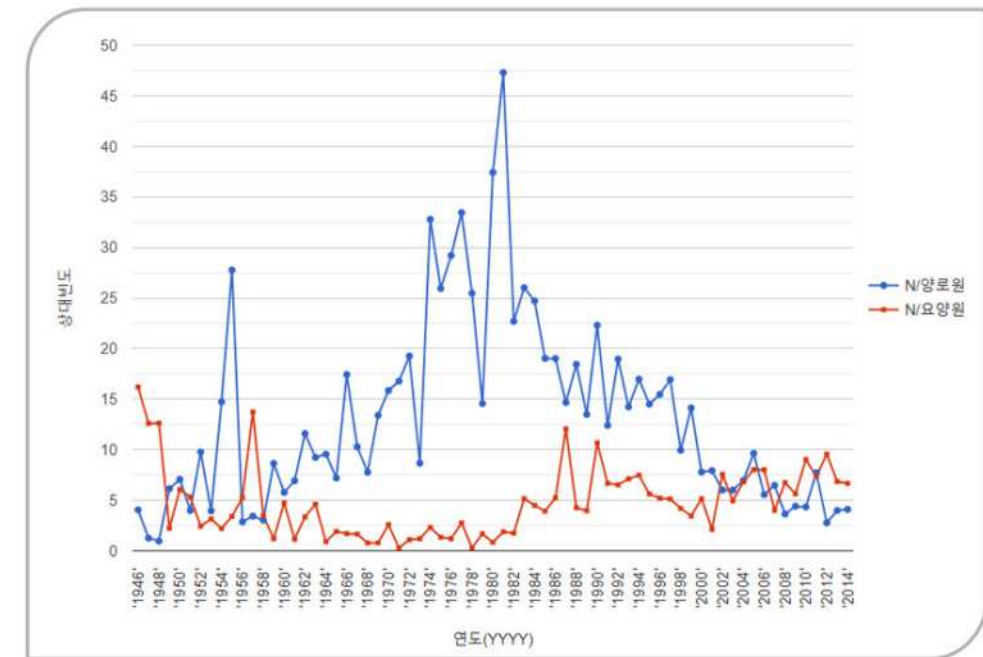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 사회는 2000년대 들어 이미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조만간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더욱 급속히 진행되어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로 인한 해결 과제가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령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노인들을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가족 외에 노인을 돌보는 시설로는 ‘양로원’과 ‘요양원’ 정도가 있다. 이 두 기관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역사 말뭉치에 흥미로운 빈도 추이가 보여 소개하고자 한다.

양로원에 모실 것인가, 요양원에 모실 것인가?

우선 ‘양로원’과 ‘요양원’의 빈도 변화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양로원, 요양원’의 연도별 사용 빈도(동아일보 역사 말뭉치)

가장 먼저 포착되는 현상은 195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를 제외하고는 ‘양로원’의 빈도가 ‘요양원’의 빈도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다. 양로원과 요양원은 둘 다 노인을 수용하여 보살피는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그러나 그 사전적 의미를 볼 때 두 기관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우리말샘』).

양로-원「001」「명사」『복지』 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수용하여 돌보는 사회 보호 시설.

요양-원「001」「명사」 환자들을 수용하여 요양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보건 기관.

즉 양로원(養老院)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용 대상이 ‘노인’으로 한정된 데 비해 요양원(療養院)은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요양원이 양로원에 비해 수용 대상이 포괄적임을 알 수 있다.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 차이는 문맥 분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양로원’의 연도별 주요 공기어*에는 항상 ‘노인’이 상위에 등장한다.¹⁾

* 공기어(共起語): 어떤 단어와 유의미하게 같이 쓰이는 단어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양로원	노인	고아원	노인	노인	노인	노인	봉사
양로원	수용	노인	고아원	시설	고아원	시설	활동
양로원	고아원	유료	시설	수용	시설	봉사	노인
양로원	일	P/서울	수용	고아원	복지	보육원	보육원
양로원	시내	선물	시립	할머니	사회	복지	시설
양로원	시설	병원	복지	복지	봉사	활동	방문
양로원	P/서울	시내	할머니	유료	방문	사회	장애인
양로원	본사	기탁	전달	위문	유료	방문	복지
양로원	마지막	본사	불우	불우	활동	무료	병원
양로원	전달	시설	사회	보호	전달	할머니	요양원

▲<표 1> ‘양로원’의 시기별 주요 공기어의 변화

1) 표에서 ‘P/’는 해당 어휘가 고유명사임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비해 <표 2> ‘요양원’의 주요 공기어에서는 ‘환자’가 대체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면 ‘요양원’의 주요 공기어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발견된다. 즉 ‘요양원’의 주요 공기어에서 ‘노인’이 ‘환자’를 앞지르면서 ‘요양원’과 더욱 높은 연관성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면서 더욱 심화된다.

그런데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감지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요양원’의 주요 공기어 목록에는 ‘노인’이 없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이르면 주요 공기어 목록에 ‘노인’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1990년대에는 기존의 환자와 노인의 위치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일어난다. 그리고 이후 ‘요양원’의 주요 공기어 목록에서 ‘환자’는 아예 사라져 버린다.

단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요양원	환자	근무	사람	정신	정신	노인	노인
요양원	결핵	환자	결핵	환자	노인	시설	봉사
요양원	치료	결핵	환자	수용	시설	전문	시설
요양원	수용	병원	배우자	시설	수용	치매	병원
요양원	P/마산	장기	입	노인	환자	봉사	복지
요양원	전염성	부재자	운영	병원	복지	복지	치매
요양원	나병	기거	박사	결핵	병원	정신	활동
요양원	국립	P/마산	P/적십자	치료	P/꽃동네	장애인	요양
요양원	공사	P/적십자	입원	P/꽃동네	치료	병원	어머니
요양원	병	접종	병	알콜	양로원	수용	복지관

▲<표 2> ‘요양원’의 주요 공기어의 변화

노인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질병도 있고 여러 연령대에 나타나지만 고령자에게서 특이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인을 보호해 주는 시설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이제는 노인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요양원’의 주요 공기어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라는 구체적인 병명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표 2>.

그러면 노인들이 요양원에 보내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이제는 요양원이 단순히 ‘환자를 잘 치료하고 보살펴 주는 시설’이라는 의미보다는 ‘고령 환자를 수용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양원’에 수용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노인 환자 스스로 느끼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를 조명하다

2020세계한국어대회 장소원 공동조직위원장



전 세계에서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릴 ‘2020 세계한국어대회’는 ‘한국어, 한글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제1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개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장소원 공동조직위원장(서울대 국문과)을 만났다.



모든 한국어학이 모이는 세계한국어대회

《선표, 마침표.》

‘2020세계한국어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됩니다. 세계한국어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장소원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분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행사인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죠. 국어 국문학과 대학원생이면 한국어학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배우지만 일단 세부 전공이 정해지면 대체로 전공 분야만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의 연구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어학의 각 분야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는지를 세계한국어대회를 통해 알 수 있으니 그것만 해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세계한국어대회도 그 생각에서 시작했어요. 30개에 가까운 국어학 학회가 있는데, 이 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국어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을 거면 ‘세계’한국어학자대회로 규모를 키우는 것도 좋겠더라고요. 외국에도 한국어학과나 한국 학연구소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대회 규모를 키우려고 국립국어원에도 도움을 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도움을 청했어요. 다행히 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세종학당재단과 국립한글박물관까지 참여함으로써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한국어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쉽표, 마침표.》

대회가 총 3분과로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각각 국어학, 한국어교육학, 문화산업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분과가 나뉘어 진행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소원

한국어와 관련한 연구도 하위 범위가 넓다 보니 분과를 세 개로 나뒀어요. 1분과는 한국어학, 2분과는 한국어 교육과 국어교육, 3분과는 한글관련 문화산업으로 나누어서 논문발표도 하고 토론포럼도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각 분과별 프로그램은 30개가 넘는 국어학과 한국어교육학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연구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기획을 했고요. 1분과 한국어학만 해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텍스트언어학, 사회언어학 등 하위 영역이 무척 많거든요. 관련 학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섭외하는 식으로 세 개 분과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쉽표, 마침표.》

한국어학을 한데 모으긴 했지만, 하나의 주제로 묶기엔 한국어학의 범위가 넓고 다채로웠기 때문이군요. 그렇다면 학술대회를 국내로 한정해도 그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세계대회로 기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장소원

세계한국어대회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한국어는 지금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외국 대학에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지인 교수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한국 사람이 외국 대학에 나가서 현지인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현지인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자신의 나라에서 교수를 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 사람들은 한국어 연구를 하고 싶어서 학회가 열릴 때마다 먼 길을 찾아오곤 해요. 사실 외국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은 외로운 일이에요. 한국어가 영어처럼 규모가 큰 언어가 아니니까요.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국어 연구를 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분들에게 한국어학이란 테두리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도 주고 싶었고요.



▲사진 출처: 세계한국어대회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wockl_org)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세계한국어대회

《쉽표, 마침표.》

세계한국어대회가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라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회 준비에서 가장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소원

처음에는 큰 규모의 대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등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못해도 천 명은 참여하길 바랐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분들을 행사장에 모으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현장에 와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오프라인 행사와 더불어, 온라인으로도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동시 행사로 꾸미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회 회원들에게도 세계한국어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요.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한국어 연구자들에게도 한국어대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반 논문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안내했더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 신청을 해 와서 놀랐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행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된 거지요.

《쉽표, 마침표.》

각 분과와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특히 온라인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가 궁금한데요.

장소원

1분과에는 음운론이나 문법론, 의미론, 국어사와 같은 언어학의 일반적인 분야도 있지만 사회언어학이나 국어 정책론 같은 응용언어학 쪽 집담회도 열려요. 또 2분과에서는 세종학당을 개설한 대학의 총장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도 있고, 3분과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한국어 연구 성과가 발표되기도 할 예정입니다. 또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어 분야의 집담회 있어서 수어와 관련된 문법 등을 연구한 논문도 이번 대회에서 다루어집니다. 사실 국어학을 하는 사람들은 수어에 관심을 갖기 쉽지 않아요. 국어학자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수어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한국어대회에서는 전 세계의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포스터 발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처음으로 진행해요. 포스터 발표자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원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했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원생, 유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신청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발표자 수보다 줄여서 60여 명 정도를 선정했지요. 넓은 홀에서 포스터판에 자기 논문의 목차와 개요 등을 써서 전시해 두고 발표자가 그 앞에 서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인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 독특한 점이지요. 포스터 판을 똑같이 세우고 그 앞에 노트북을 두면 정해진 시간에 발표자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답하는 식이에요. 외국에 있는 연구자와 영상으로 만나 실시간으로 학문적인 토론을 하는 것은 과학이 이루어 낸 성과인 셈이지요.

《심표, 마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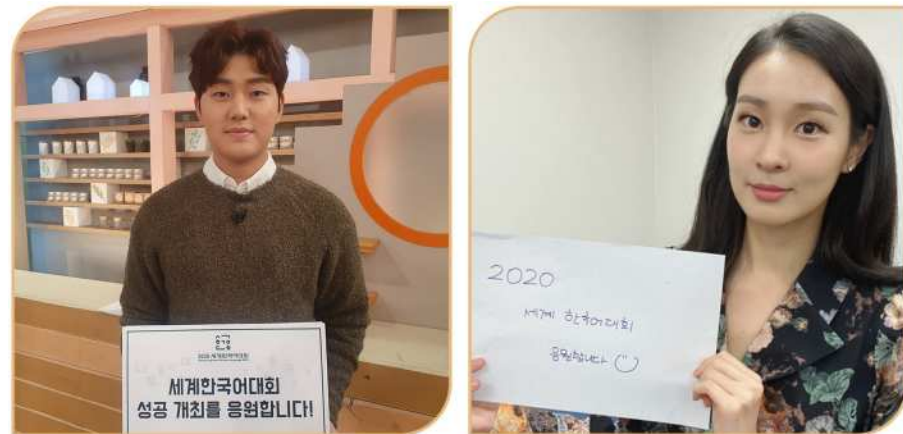
이번 학술대회 중 3분과가 특히 눈길을 끄니다. 디자인이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우리 말글을 논한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흥미롭습니다.

장소원

외국인들 중에는 한국어와 한글 자체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 유학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인 친구랑 대화하는 걸 들은 프랑스 사람이 “너희가 하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니? 듣기에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다양한 한글 서체가 개발돼서 활용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글이 적힌 티셔츠를 멋지다고 하면서 입기도 하잖아요.

또 디자인뿐 아니라 한국어는 다른 산업과 많이 융합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음식점들 중에는 사람이 아닌 기계에 주문을 하는 곳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세 있는 분들은 기계를 사용한 주문이 쉽지 않지요. 얼마 전 한 정보통신회사의 연구진을 만났더니 이제는 글이 아닌 말로 주문을 받는 기계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말뭉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연구의 쓰임새가 커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에도 단순히 인공지능에게 문법을 학습시켜서 되는 일이 아닌 것이,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도 미묘한 차이가 번역을 어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국어학자들이 실생활에서 쓰이는 언어 자료를 모아 말뭉치를 만드는데, 그 자료에 문법적인 정보를 다 붙여서 주면 인공지능이 이를 활용해서 훨씬 완성도가 높은 번역을 해내지요. 과학자와 국어학자가 함께 연구를 해야 하는 분야인 겁니다.



▲사진 출처: 세계한국어대회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wockl_org)

《심표, 마침표.》

함께 진행되는 행사들이 눈에 띄니다. 1분과의 랩 공모전과, 2분과의 한국문화교육 영상공모전이 특히 그렇습니다. 학술대회에서 공모하는 랩이라... 참 재미있는데요,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소원

이 대회를 국어학을 하는 사람만의 대회가 아닌 우리말과 글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모전도 시작한 거죠. 1분과에서는 한국어 랩 공모전, 2분과에서는 한국문화교육 관련 영상 공모전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접수가 안 들어와서 걱정이 됐는데 막판에 꽤 많은 작품이 들어왔어요.

랩 공모전은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를 주관하고 한국문화 동영상 공모전은 세종학당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도 있고 국립국어원장상, 세종학당재단이사장상 등이 있으니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야지요.

제가 랩 공모전에 응모한 랩들을 들어보니까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훨씬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국 문화 교육용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노래와 한복, 요리로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민속놀이로 가르치기도 하는 등, 정말 다양해서 심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웃음)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 한국어

《쉽표, 마침표.》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일반인도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을까요?

장소원

드래곤시티 5층에서 열리는 한글 관련 전시를 추천하고 싶어요. 이 대회가 한국어학자대회가 아니라 한국어대회이다 보니 학자뿐 아니라 우리말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전시공간을 마련했지요. 전시는 한글박물관에서 주관해서 한글 관련 공예품과 한글을 응용한 디자인, 영상 등을 전시할 계획이에요. 원래는 인공지능 업체 쪽에 부스를 주고 실제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는 계획도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지 못하게 되어서 아쉽게도 못하게 됐어요. 세계한국어대회는 매년 개최될 거니까 인공지능은 다음 대회에서 선보이기로 하고 이번에는 한글 자체에 집중한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쉽표, 마침표.》

누리소통망에서 퍼지고 있는 ‘세계한국어대회 홍보 참여 잇기’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일반인들도 잘 아는 분들도 참여해 반가웠습니다. 참여 잇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장소원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한국어대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죠. 이 대회를 세계한국어학자대회가 아닌 세계한국어대회로 만든 데는 우리말과 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참여하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분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대회를 처음 여는 데 의의를 두기로 했어요.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 후년 대회가 계속될수록 점차 규모도 커질 거고 내용도 다양해질 테니까요.

참여 잇기는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첫 주자로 나서서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주자로 케이비에스 박대기 기자와 에스비에스 박진호 기자를 지목했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서울대에서 강의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계’라는 교양과목에서 매년 특강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인연으로 이분들에게 세계한국어대회를 많이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케이비에스에서는 한국어연구회를 담당하는 윤인구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많은 아나운서분들이 이미 참여를 해 줬고요.(웃음) 아무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 잇기에 동참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요.

《쉽표, 마침표.》

세계한국어대회에서 조명할 한국어와 한글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소원

어떤 모습일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웃음)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국문과에 갈 때만 해도 불문과에 입학한 제 친구가 “넌 유학 안 가서 좋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국문과 학생이 유학을 갈 일이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30여 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인문대 교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세계를 누비는 교수가 됐어요. 영문학과 교수들은 영어권, 불문학과 교수는 불어권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하지만 저는 동남아, 미국, 남미, 유럽까지 전 세계 곳곳을 다녀요. 한국어 연구나 교육과 관련된 곳에는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몇 년 전 두바이에 갔을 때는 길을 걷다가 비티에스(BTS)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여학생을 만났는데 제가 한국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국제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요즘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덕분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으면서 덩달아 한국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덕분에 터키,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기도 했고요. 한국어의 위상이 확실히 예전보다 높아진 것이지요. 저 같은 학자들은 더 재미있는 교재를 만들고 한국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것에 집중해야죠.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세계한국어대회가 한국어와 한글이 갈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우리말 풀기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는 12월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여유로운 시간에는 우리말 풀기도 잊지 마세요!

문제 1

덧붙는 특정한 의미에는 (8)에서와 같은 ‘조건/가정’ 이외에도
‘목적/의도, 원인/이유, 앞선 시간, 배경 상황, 양보’ 등이 있다.
이처럼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종속되어 연결된 문장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를 밝히며,
“이 토론의 장이 앞으로 □□□이 올바르게 나아가고
매체언어가 발전하는 데에
마중물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3

□□□□는 ‘바이 소셜’을 다듬은 말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권 및 환경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을 뜻해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4

오늘 소개한 말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흥내말을 사용하여 그 □□을 한껏 살린 낱말들이다.
새말이 만들어질 때 이처럼 우리 고유의 □□을
잘 살린 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단서 표준어 바깥의 세상

문제 5

이는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요양원’의 주요 ☐☐☐에 노인성 질환인 ‘치매’라는
구체적인 병명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단서 말뚱치로 바라보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12. 1.~2020. 12. 15.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1년 1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김*나(9341) 권*희(9033) 고*량(0075) 천*영(6892) 오*린(6471)
이*주(1740) 김*영(7929) 김*리(8931) 김*민(5162) 김*완(7712)

우리말 풀기



올 한 해 《쉽표, 마침표.》와 ‘우리말 풀기’를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쉽표, 마침표.》는 내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우리말 풀기’도 놓치지 마세요!

문제 1

집에 ☐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내던 새로운 풍경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꼭 멀리 떠나야 ☐ 하는 건 아니죠.
어디서든 가족과 함께 한다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2

☐☐☐☐☐☐은 ‘라키비움’을 다듬은 말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통합적으로 갖춘
기관 또는 공간이나 시설을 뜻해요.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3

한국어가 영어처럼 규모가 큰 언어가 아니니까요.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국어 연구를 하는 분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이란 테두리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도 주고 싶었고요.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문제 4

(6)에는 형이 한 말을 그대로 따온 인용절이 들어 있고
(7)에는 그 말이 현재 화자의 관점에서 변형이 되어 있는 인용절이 들어 있다.
앞엿것을 직접 인용절이라 하고 뒤엿것을 간접 인용절이라고 한다.
학교 문법에서 (6)과 (7)은 인용절을 □□□□이라고 한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12. 15.~2021. 1. 5.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12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김*나(9341) 권*희(9033) 고*량(0075) 천*영(6892) 오*린(6471)
이*주(1740) 김*영(7929) 김*리(8931) 김*민(5162) 김*완(7712)